겨울숲엔 가난한 시간, 절 마당엔 뜨거운 장작이…

⑯ 묘적사 계곡길 그리고 묘적사(妙寂寺)

묘적사 주지 해송 스님〈사진 왼쪽〉과 멀리서 찾아온 도반 윤성 스님이 번달아 도끼를 잡고 장작을 패고 있다.

'묘적사 계곡길'. 마을버스에서 내리자 표지판이 보였다. 집배원의 빨간 오토바이가 묘적사 계곡으로 향한다. 보낸 사람의 이름과 그 이름이 부탁한 누군가의 주소를 싣고 오토바이가 길을 오른다. 오토바이가 사라진 길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그 길엔 이름처럼 묘적사가 있었다. 11월 20일 걸었다.

경기도 남양주의 묘적사 계곡길은 둘레길로 명명된 '걷기' 길은 아니다. 약 1km 정도 계곡을 따라 오르면 묘적사가 나오는데, 본격적인 묘적사 계곡은 묘적사부터다. 중앙선 덕소역에서 60번 마을버스를 타면 묘적사 계곡길 입구에서 내릴 수 있다. 종점이다. 묘적사까지는 거의 포장된 길이다. 경사가 있지만 힘들지 않다. 갈색의 잔엽(殘葉)을 달고 햇살 쪽으로 기운 메타세쿼이아들이 길을 안내한다. 그 숲에서 태어난 바람을 맞고,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길을 걷다보면 희미하게 풍경(風磬)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묘적사다. 멀리서 빨간 오토바이 한 대가 보였다. 빈 오토바이가 집배원을 싣고 내려왔다. 혼자 살 수 없음이다.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집배원의 손에 '나'의 이름과 '너'의 이름이 들려 있다. 빨간 오토바이가 다시 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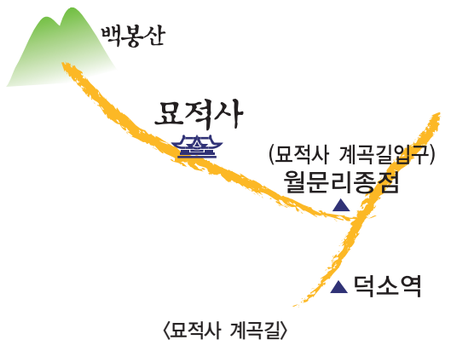
묘적사도 추웠다. 노란 은행잎이 모두 땅에 내려와 있다. 얼마 전 가수 이효리가 템플스테이를 하고 나서 더욱 알려진 묘적사는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 고려 때 연혁은 전하지 않는다. 세종 때 학열 스님이 중창한다. 1486년 성종 17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절 이름이 나온다. 일설에 따르면 국왕 직속의 군사들이 군사훈련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임진왜란 때는 유정이 승군을 훈련하는 장소로 썼으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끝난 뒤에는 스님들이 무과 시험을 준비하는 훈련장으로 썼다. 절 앞 동쪽 공터에서 오래 된 화살촉이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활터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는 일반인이 경내에 무덤을 썼을 만큼 폐사되었다가 1895년 고종 32년 규오 스님이 산신각을 중건했고, 1969년에 화재로 소실된 도량을 다시 규오 스님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전과 선원, 요사 2채 정도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1호인 팔각칠층석탑이 있다. 전각 지붕마다 낙엽이 쌓여 있고, 석탑에도 층층이 노란 은행잎이 쌓여 있다. 마당 한 켠에는 소금에 절인 배추들이 쌓여 있다. 쌓인 배추 옆에서 주지 해송 스님이 장작을 패고 있다. 퍽~퍽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도량에 퍼진다. 묘적사 템플스테이에는 다른 사찰과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도량에 찜질방이 있는데, 장작은 찜질방 뗄감으로 쓴다. 그 장작을 주지 스님이 손수 팬다고 한다. 장작을 패고 있는 주지 스님 곁으로 멀리서 도반이 찾아왔다. 도반을 알아 본 해송 스님이 말없이 도끼를 건넨다. 인사다. 도끼를 건네받은 도반 스님이 단번에 장작을 쪼개낸다. 인사다. 한 동안 해송 스님과 도반 스님은 도끼를 번갈아 들며 장작을 팼다. 주지 스님이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차 한 잔 합시다." 기자도 따라 들어갔다. "이제 날이 좀 춥네. 오늘 김장하는 모양이지?" 도반 스님은 양수리 세종사의 주지 윤성 스님이다. "도량이 템플스테이 하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서 가깝고 금방 자연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 좋습니다." 기자도 인사 겸해서 한마디 했다. 주지 스님이 찻잔을 다시 채워주며 말했다. "도량이 다 좋지요. 따로 좋을 게 있습니까?" 도반을 찾은 윤성 스님이 안부를 물었고, 해송 스님도 윤성 스님의 안부를 물었다. "뭐, 날 추워지니까 장작 패고… 그러고 살지 뭐." 주지 스님이 새 물로 다시 차를 우렸다. 내 기사 쓰자고 이것저것 묻기가 뭐해서 차 석 잔 마시고 일어섰다. 오랜만에 만난 두 스님에게 기자는 불청객이었다. 말씀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 "다음에 우리 절도 한 번 오세요?" 일어서는 기자에게 윤성 스님이 웃으며 말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오라는 곳이 있고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 싶다. 그곳에 도반이 있다면 더욱 그렇지 싶다.

대웅전 옆으로 조금 걸으면 백봉산 정상으로 가는 묘적사 계곡길이 이어진다. 묘적사 옆으로 이어진 길은 절밑에서 걸어온 길과 만나는데, 그 지점부터는 사유지다. '출입금지' 표시가 된 철문이 굳게 닫혀있다. 하지만 절을 통하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주지 스님도 사유지이긴 하지만 길은 걸어도 괜찮다고 했다. 개울을 하나 건너면 된다. 여름엔 계곡 바위에 앉아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고 한다. 묘적사 계곡은 물이 많기로 유명하다. 겨울 문턱이지만 계곡물 소리가 한여름 계곡 같다. 차가운 개울물 옆에는 갈대들이 지나간 바람의 모습을 하고 서있다. 잎새 없는 나무들은 앙상한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사는 듯 했고, 무성했던 숲을 잃어버린 새들은 자꾸만 울었다. 겨울 숲이다. 모두 가난해 보였다. 가난한 시간이다. 겨울 숲은 가난한 나를 돌아보게 했다. 절 밑에 두고 온 나의 가난. 길은 나의 가난을 물었다.

백봉산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걷고 싶은 만큼 걷고 돌아오면 된다. 어디서 오는 것인지 백구 두 마리가 내려온다. 거기까지 걷고 백구를 따라 산을 내려갔다. 백구는 묘적사 식구였다. 백구를 따라 다시 묘적사로 들어갔다. 마당 한켠에서 다시 장작 패는 소리가 들려 왔다. 묘적사엔 뜨거운 장작이 쌓이고 있었고, 겨울 숲은 가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백봉산 정상으로 오르는 묘적사 계곡길

묘적사 대웅전과 칠층석탑



〈묘적사 계곡길〉

성지순례는 미암사로, 방생은 백마강으로

세계최대 와불, 의자왕 출가한 곳, 소원성취 쌀바위, 진신사리증과, 인체에 효험약수 (점심공양, 입장료 무료, 단체 및 개인 성지순례 불자님을 환영합니다)

미암사의 연혁

미암사는 부여에서 서쪽 보령 방향으로 16km쯤 되는데, 부여에서 15분쯤 가다가 구룡천을 따라 40번 국도로 4km정도 올라가면 왼쪽으로 금북정맥 계향산이라는 아름다운 명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백제시대 침류왕때 쌀바위에 유씨 부인이 공을 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얻어 소원도 성취했다 하여 큰 영험이 있으므로 쌀바위(충남도지방 문화재 제371호) 이름을 따서 무왕께서 쌀미(米), 바위암(岩), 미암사(米岩寺)라 하였다. 사촌마을을 미암부락이라고 했다. 쌀바위에서는 원적외선 응용 평가센터 시험성적서에 의하면 원적외선이 92.1% 방출 됨으로 노화방지, 성인병 제거, 중금속제거, 곰팡이 번식방지, 신진대사 촉진,혈액순환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
미암사 만청스님은 그 후 몇차례 전소되어 일부 복원 하고 있으며, 지금은 다시 전통사찰 양식으로 고증받아 복원 불사 중에 있다. 또한 1998년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셨던 바, 2004년 납월 친견당시 자연적으로 3과로 자리를 옮겨 증과된 신비한 기적을 일으켰으며 2010년 9월 10일 진신사리 1과를 부여 백제 재현단지 능사에 기증 하였다. 서해안시대를 맞이하여 백제권 불교 문화가 중심이 되도록 부동정심의 대원력을 세워 국운융창, 국민화합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삼계의 도사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부처님 세계최대열반상을 2005년 4월 17일 미암사 도량에 전국사부대중의 동참으로 원만성취 조성을 회향하게 되어 점안식을 봉행하게되었다.
소원성취기도도량 불교성지 미암사에 오셔서 악업은 소멸하고, 무량공덕 쌓으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요. 적멸보궁 세계최대열반상 불교성지 미암사는 성지순례코스로 가장 적당하며,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께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암사 TV. 라디오방영 사례

mbc 드라마계백 / kbs2 전설의고향 / mbc 라디오 전설따라삼천리 / sbs 생방송투데이 / kbs1 쾌지나칭칭 / kbs2 생생정보통 / mbc 공감특별한세상 / kbs, vj특공대 / mbc TV특종놀라운세상 / sbs 출발모닝와이드 / kbs2 굿모닝 대한민국 / kbs2 생생정보통 / 불교tv / cmb생방송뉴스 / 실버TV만청문화행사 / tjb 특집프로

▷와불국화축제

▷진신사리 증과

▷만사형통 문수동자

▷쌀바위(운수대통)

▷장엄노천불 공원

▷10년만의 자손득남

▷33층 석탑 진신사리 점안식

▷효험 산신불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 / 팩스 041)832-1187